

‘5·18 헌법 수록’ 약속 없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강정호 국가보훈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등이 18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이주호 대행 5·18 기념사에 헌법 전문·내란 반성 언급 없어 ‘허탈’
기념식 2500여명 참석 엄수 ...전야제 5만여명 모여 ‘민주 축제’로

관련기사 3·5·9·10·16·20·22면

‘12·3 계엄사태’로 전국적인 관심 속에 치러진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다.

계엄사태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총리마저 퇴임한 기념식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차치하고라도 내란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 한마디 없는 기념사를 낭독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등 3개 정당 대선 후보만 참석, 소통과 화합의 무대를 기다렸

던 국민기대를 저버렸다.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됐다.

‘함께, 오월을 쓰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첫 행사로 남았다.

이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끊임없이 오월의 정신을 되살려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1980년 5월, 광주는 평범한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정의·인권의 가치를 목숨 바쳐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 자신의安危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망설임 없이 거리로 나온 우리의 부모·형제·자매들은 부정과 불

의에 맞서 온몸을 던져 싸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민은 물론 국민이 원하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5·18기념재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주호 권한대행 기념사는 5·18 헌법전문 수록 등 5·18 헌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내용도 없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주호 권한대행의 기념사는 아쉽다. 계엄에 대한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없고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다짐도 없었다”면서 “기념사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오늘도 여지없이 빗나갔다”고 썼다.

12·3 계엄사태 이후 맞이한 이번 5·18 기념행사에는 전국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날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5·18전야제에는 전국에서 5만여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국립5·18민주묘지와 전일빌딩을 비롯한 5월 유적지에도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 기념 영상에서는 518년 시내버스를 따라가며 시민들이 바라보는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공유했다.

기념식의 마무리 식순인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서 참석자들은 각자 옆 사람의 손을 맞잡고 앞뒤로 흔들거나, 주먹을 흔들며 한 목소리로 오월의 노래를 불렀다.

이 권한대행과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정부 인사, 3명의 대선 후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각 정당 지도부 인사 모두 제창을 함께했다. 한편 전날 5·18 묘역을 참배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기념식에는 불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

오월정신 헌법 수록...결선투표제·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현장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내놔다.

이 후보가 제안한 개헌공약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18일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페이스북에도 “진짜 대한민국을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개헌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투표를 걸쳐 진행하자고 했다.

이 후보의 개헌공약 핵심은 대통령 책임 강화와 권한 분산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과 관련, 이 후보는 “문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 임명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상계엄 선포 제한에 대해서는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사상최악의 대형 화재

▶관련기사 2·6·7·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질병관리청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피부는 햇빛을 싫어하지만
진드기를 더 싫어합니다

예방 2 기피제 뿌리고

기피제 X 기피제 O

[진드기 기피제 주요 성분 및 함량]
•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7~30% 이하: 탈진드기, 참진드기
• 이카리딘: 7% (탈진드기), 15% (탈진드기, 참진드기)
• IR3535: 12.5% (탈진드기), 14% (탈진드기, 참진드기)
*프프가우시움(탈진드기), SFTS(참진드기)

* 성분함량, 효과 지속시간이 다르므로 제품별 사용법 확인 후 사용

예방 3 풀숲 피하고

이 공약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광고광고 수수료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예방 1 옷 제대로 입고

모자, 긴팔, 긴바지, 등산화, 목수건, 장갑, 돗자리, 목이 긴 양말

예방 4 털고, 씻고, 빨래하고

에어컨으로 진드기 털기, 전선 샤워 및 진드기 찾기, 야외복 분리 세탁하기